THE FACT

파주시,반환 미군기지에 평화랜드마크 조성

캠프하우즈내 미군건물,복합문화공간과 평화뮤지엄 등으로 탈바꿈

입력: 2021.03.29 11:40 / 수정: 2021.03.29 11:40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반환기지인 캠프하우즈 낸 존치건물 6동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 평화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파주시청 제공

캠프하우즈내 미군건물,복합문화공간과 평화뮤지엄 등으로 탈바꿈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내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추진한다.

캠프하우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정 이후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2018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대상으로 선정돼,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 1단계 사업인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비 205억을 확보하고 2020년 기본계획 수립 후 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조리읍 미군반환기지인 캠프하우스내 건물.미군 주둔시 군공동사회봉사센터로 사용 되었으나 리모델링을 거쳐 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하게 된다./파주시청 제공

특히 올 하반기에 '평평한마을 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존치건물 리모델링과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안공모에서 공원조성사업 1단계 중 건축 부분존치건물 6동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며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했던 건물들과 주변 환경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방식으로,공모 참가자는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할 설계자를 선정한다.

파주시 조리읍 미군반환기지인 캠프하우스내 건물.미군 주둔시 미군들의 체력단련실로 사용 되었으나 리모델링 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뀔 예정이다./파주시청 제공

캠프하우즈 존치건물 6동은 각각 커뮤니티센터와 F&B푸드샵,복합문화공간,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평화뮤지엄으로 탈바꿈하며 리모델링 사업비로 약 공사비 95억원과 설계비 5억 등 100억 규모다.

공모 최종 당선자(팀)에게 설계권 및 설계의도구현권을 지급하고 이외 입상자(팀)에게는 공모보상비 3,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파주시 조리읍 미군반환기지인 캠프하우스내 미군숙소.이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케스트하우스로 운영된다./파주시청 제공

참가자는 4월 30일까지 참가 등록해야 하며,5월 7일 제안서 접수 후 5월 14일과 17일 심사를 통해 당선자와 입상자를 선정한다.선정결과는 5월 21일 최종 발표한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전체 3단계로 구분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캠프하우즈는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미군기지로 1953년 미군에 공여되어 2004년 철수까지 미군이 주둔했다.

newswork@tf.co.kr

Copyright©tf.co.kr